

축 사

만나는 얼굴마다 웃음이 넘치고 대지와 하늘엔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청아한 바람은 이 땅의 생명을 평화와 안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맘껏 발휘하는 행복한 순간에도,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에 젊은 세대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정들의 어깨는 삶의 짐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나아가는데도 설자리를 잃어가는 노년의 고민은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안타깝게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불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현안을 마주하며 조계사와 법보신문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사회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자 ‘힐링법석’을 열고, 또 ‘불교힐링’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좋은 사례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 진리를 구현하셨고, 일생을 중생들과 마주하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

살펴 주셨습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교는 ‘힐링-heal·ing’의 종교이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터에도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승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최근 법륜 스님을 비롯해 혜민, 마가, 정목 스님 등이 고통 받는 이웃들과 소통하고 함께 희망을 가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고통에 있는 중생들의 아픔을 감싸 안으려는 노력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노력들은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모범이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불교힐링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힐링 열풍의 배경과 향후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불교힐링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힐링법회와 학술세미나를 준비한 조계사와 법보신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성황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살과 청아한 바람이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5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